

## 에스겔 18:5-9과 레위기 19장의 본문상호성과 그 신학적 함의<sup>1)</sup>

조정호\*

### 1. 들어가는 말

오리겐 이후 레위기 17-26장과 에스겔서가 많은 어휘와 표현을 공유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sup>2)</sup> 레위기 26장은 에스겔서 전체와 더욱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것이 널리 인정된다.<sup>3)</sup> 밀그롬(J. Milgrom)은 레위기 26장이 에스겔 34:24-28; 11:12, 5:17; 14:15, 17; 36:9-11; 37:26-27; 4:16; 5:10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sup>4)</sup> 왕(K. L. Wong)은 레위기 26장과 에스겔서 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의 목록을 작성한 후에 에스겔 4-6; 14:12-23; 34:23-31; 37:24-28이 레위기 26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sup>5)</sup>

---

\*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구약학.

- 1)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구약성경에 나타난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레 19장; 신 10:12-11:1; 겔 18:5-9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의 V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M. A. Lyons, *From Law to Prophecy: Ezekiel's Use of the Holiness Code* (New York · London: t&t Clark, 2009), 1.
- 3) J. Milgrom, “Leviticus 26 and Ezekiel,” C. A. Evans and S. Talmon eds., *The Quest for Context and Meaning: Studies in Biblical Intertextuality in Honor of James A. Sanders*,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28 (Leiden; New York: Brill, 1997), 57.
- 4) Ibid., 57-62.
- 5) K. L. Wong, *The Idea of Retribution in the Book of Ezekiel*, VTSup 87 (Leiden: Brill, 2001).

한편 레위기 18:5은 에스겔 20장에 세 번(11, 13, 21절) 나타남으로써 에스겔 20장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주목받는다.<sup>6)</sup> 스프링클(P. Sprinkle)은 레위기 18:5이 에스겔 20장을 넘어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규례와 법도를 지킴’ 언어(겔 5, 18, 20, 36, 37장)와 ‘생명’ 언어(겔 3, 13, 16, 18, 20, 33, 37장)가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18장과 20장의 성취되지 못한 율법이 36장과 37장에서 율법의 성취로 연결되고, 18장과 20장과 33장의 성취되지 못한 생명이 37장에서 생명의 성취로 연결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밝혀내었다.<sup>7)</sup>

라이온스(M. A. Lyons)는 에스겔서와 레위기 17-26장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두 본문간의 유사성은 인식하면서도 그 이면의 논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두 본문의 형성과 의존의 방향에만 집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sup>8)</sup> 그는 두 책에 포함되어 있는 유사한 본문들을 본문상호성

6) W. Zimmerli, *Ezekie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410; M. Greenburg, *Ezekiel 1-20*, AB 22a (New York: Doubleday, 1983), 366; L. Allen, *Ezekiel 20-48*, WBC 28b (Dallas: Word Books, 1994), 10;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1-24*,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7), 632.

7) P. Sprinkle,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OT* 31:3 (2007), 275-293.

8) M. A. Lyons, *From Law to Prophecy: Ezekiel's Use of the Holiness Code*, 4. 라이온스는 에스겔서와 레위기 17-26장의 의존관계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1) 에스겔 예언자가 거룩법전을 기록했다. 2) 거룩법전의 저자가 에스겔서를 사용했다. 3) 거룩법전과 에스겔서가 공통 자료를 공유한다. 4) 거룩법전과 에스겔서의 저작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5) 에스겔 예언자가 거룩법전을 사용했다 (Ibid., 35-46).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개 제사장 문서가 에스겔서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Moral Discourse*, SBL DS (Georgia: Scholars Press, 1990), 12 각주 9). 학자들은 에스겔 전통이 포로기 이스라엘 내의 다양한 전통 속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과정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 연구한다(ibid., 11-17). 에스겔서에는 그 중 제사장 전통과 신명기 전통이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이처럼 에스겔서에 제사장 전통과 신명기 전통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이 나타난다는 것은 에스겔서 저자가 기존의 여러 전통에 익숙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에스겔 18:5-9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에스겔 18:6, 우상숭배와 성윤리 규례는 레위기 18-20장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보다 최근의 연구들과 같이, 본 논문도 제사장 문서가 에스겔서에 앞선다고 본다.

(intertextuality),<sup>9)</sup> 영향, 암시, 인용 등으로 평가하여 에스겔서가 레위기 17-26장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sup>10)</sup>

레위기 17-26장과 에스겔서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전체 본문 단위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레위기의 26장과 18장이 각각 에스겔서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있을 뿐, 레위기와 에스겔서의 보다 작은 본문 단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보기 어렵다. 레위기 18장과 에스겔 20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레위기 18:5이 에스겔 20장에 자주 인용된다는 관찰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레위기와 에스겔서에서 어휘적, 신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보다 작은 본문 단위로 레위기 19장과 에스겔 18:5-9에 주목한다. 유사한 율법이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함의 주제 아래,<sup>11)</sup> 에스겔 18:5-9에서는 공의의 주제 아래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은 도입(레 19:1-2)과 결론적 권고(레 19:37)를 제외한 모든 본문(레 19:3-36)에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례를 기록한다.<sup>12)</sup> 반면, 에스겔 18장은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sup>13)</sup>를 행하기 위해 지켜

9) 본 논문은 ‘intertextuality’를 ‘본문상호성’ 혹은 ‘본문상호적해석’이라고 번역한다. 본문 상호간의 연관성 자체를 의미할 때는 본문상호성, 본문 상호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본문상호적해석이라고 쓴다. 후자를 위해서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7), 13, 각주 38 참고.

10) Ibid., 47-75.

11) 레위기 19장이 구약성경에서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보는 관점은 널리 인정된다. B. A. Levine, *Levitic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89), 125;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Augsburg, 1995), 182; A. Cothey, “Ethics and Holiness in the Theology of Leviticus,” *JSOT* 30:2 (2005), 132; J. E. Robson, “Forgotten Dimensions of Holiness,”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3(2011), 122; J. Muilenburg, “Holiness,” G. A. Butterick ed., *IDB* 2 (New York: Abingdon, 1969), 622.

12) 레위기 19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 19:2 이스라엘에 대한 거룩함 명령

B 19:3-36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한 규례

A' 19:37 법도와 규례 준수 명령

13) 에스겔 18장에서 “정의와 공의”는 “공의”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공의”로 대표되는

야 하는 규례를 세 개의 목록(18:6-9, 10-13, 15-17)으로 제시한다. 그 중 6-9절은 다른 목록이 제시하는 율법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에스겔 18장이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 덕목은 5-9절 주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sup>14)</sup>

거룩함이 레위기 19장의 다양한 규례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할 때, 레위기 19장에서 재판과 도량형에서의 공의(레 19:15, 35-36)는 거룩함을 구성한다. 니한(C. Nihan)은 레위기 19장의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무역을 거룩한 삶을 위한 사회정의의 기본 조건이라 본다.<sup>15)</sup> 그러나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는 다양한 규례를 아우르는 주제로 나타남으로써 레위기 19장의 거룩함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에스겔 18장의 공의는 레위기 19장의 거룩함과 등가적인 개념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레위기 19장과 에스겔 18:5-9의 본문상호성을 바탕으로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이 에스겔 18장의 공의로 변주<sup>16)</sup>된다는 것을 밝히

---

경향이 있다. 에스겔 18:5, 19, 21, 27은 18:5-9에 나타나는 의로운 사람의 행위를 “정의와 공의”로 표현하는 반면, 18:20, 22, 24, 26은 “공의”만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런 경향성은 에스겔 18:19-24과 내용상 병행을 이루면서 에스겔의 파수꾼 역할을 강조하는 3:16-21과 33:10-20에도 나타난다. 즉 18:5-9에 나타난 의로운 사람의 행위를 33:14, 16, 19절은 “정의와 공의”로, 3:20과 33:12, 13, 14, 16절은 “공의”로 표현한다. 에스겔 14장도 다니엘 노아, 욥의 행위를 “공의”로만 표현한다(겔 14:14, 20). 본 논문에서 “(정의와) 공의”는 이러한 경향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 14) 에스겔 18장은 죄에 대한 벌의 가족의 공동처벌에 대한 논쟁문을 담고 있다(J. 블렌킨쑤프, 『에스겔』, 현대성서주석, 박문재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24). 이 논쟁문에서 에스겔은 구체적인 세 율법 목록(겔 18:6-9, 10-13, 15-17)을 제시한다. 이 중 10-13절과 15-17절은 6-9절이 제시하는 계명들을 대부분 재현하며, 일부 계명이 생략되거나 계명들의 배열 순서에 작은 변화가 있다.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Moral Discourse*, 88-91 참고.

- 15) C. Nihan,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7), 476.

- 16) ‘변주(variation)’는 음악 용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은 변주를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선율·리듬·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라고 정의한다(<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B3%80%EC%A3%BC&range=all>).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함을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규례가 에스겔 18:5-9에서는 공의를 규정한다. 두 본문에 나타나는 거룩함과 공의의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중요 어휘와 내용 등이 공명한다는 점에서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은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로

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레위기 19장과 에스겔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스겔 18:5-9의 주석 과정에서 두 본문간의 본문상호성이 드러날 것이며, 그 결과 위에서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이 에스겔 18장의 공의로 변주되었다고 해석할 것이다. 주석은 수사비평적 방법, 주제 분석, 본문상호적해석, 어휘 풀이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 2. 에스겔 18:5-9의 주석

### 2.1. 에스겔서의 구조와 에스겔 18장의 의의

주석가들은 대체로 에스겔서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1-24장), 열방에 대한 심판(25-32장), 이스라엘의 회복(33-48장) 예언 순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본다.<sup>17)</sup> 이 견해에 따르면 에스겔 1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1-24장)에 포함된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에스겔의 상징행동(4; 5; 12; 24장), 환상(10장), 비유(15; 17; 20; 22; 24장)로 표현된다. 우상숭배는 가장 자주 거론되는 멸망 이유이다(겔 6:1-14; 8:1-16; 14:1-5; 20:16, 24-32 등). 이외에 폭행(8:17),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음(18:1-32), 안식일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20:13, 16, 21), 백성과 예언자와 제사장의 종교적, 도덕적 죄(22:1-31)도 멸망 이유로 언급된다.

우상숭배가 멸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맥락에서 18장과 22장은 도덕적인 죄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에스겔 18장을 통해 에스겔서의 도덕 담론을 연구한 매티즈(G. H. Matties)는 18장이 에스겔서의 도덕 담론으

---

변주한다고 볼 수 있다.

17) M. A. Sweeney, *Reading Ezeki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orporated, 2013), 6.

로 들어가는 입구를 제공한다고 본다.<sup>18)</sup> 매티즈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18장은 순수한 종교적 차원의 죄를 함께 열거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18장 5-9절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겔 18:5)라는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종교적, 사회도덕적인 규례로 진행된다.<sup>19)</sup> 에스겔 18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규례를 모두 ‘미쉬파트 우츠다카’(מִשְׁפָּט וְצֶדֶק), 즉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에스겔 18장의 의의를 발견한다. 에스겔서 이전까지 “정의와 공의”는 이사일의어(二詞一意語, hendiadys)로서 하나님의 통치(사 5, 10장; 시 97, 99편 등), 왕의 통치 원리(삼하 8:15-18; 사 9:1-7; 32:1-20; 렘 22:13-19; 23:5-8; 33:14-18; 시 72편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천 덕목(신 10:17-19; 사 1:21-31; 5:1-23 등)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은 여기에 순수한 종교적 규례도 포함시킨다. 이 점은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이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로 변주된다고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 2.2. 에스겔 18:5-9의 구조

에스겔 18장은 논쟁연설(disputation speech) 장르에 속한다.<sup>20)</sup> 논쟁연설이라는 장르 자체는 논지, 반대 논지, 논쟁 등의 요소를 가지며, 에스겔 18장도 그 요소를 따라 구조화된다: 논지(18:2), 반대 논지(18:3-4), 반대 논지를 지지하는 논박(18:5-20), 반대 논지 이면의 신학적-윤리적 탐색

18)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Moral Discourse*, 2.

19) 바인펠트(M. Weinfeld)는 에스겔 18:5,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 따라 행하며’가 18:5-9을 이끄는 결의론적 정의가 된다고 본다. Ibid., 100에서 재인용.

20)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Moral Discourse*, 56. 논쟁장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A. Graffy, *A Prophet Confronts His People: The Disputation Speech in the Prophets*, AnBib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4); D. F. Murray, “The Rhetoric of Disputation: Re-Examination of a Prophetic Genre,” *JOT* 38 (1987), 95-121 참고.

(18:21-32). 에스겔 18:5-9은 반대 논지를 지지하는 논박에 포함된다. 이 논박(18:5-18)은 ‘의로운 사람(5-9절)-그의 악한 아들(10-13)-악한 아버지의 의로운 아들(14-18절)’이라는 삼 대에 걸쳐 각자의 행위는 그에 상응한 결과를 맞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각 소단락은 생명을 얻을 행위 목록을 결의론적인 율법의 형태(if..., then....)로 표현하고,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일반론으로 끝난다.<sup>21)</sup>

에스겔 18장의 법 목록(겔 18:5-9, 10-13, 14-17)의 양식과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있었다.<sup>22)</sup>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법 목록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하는 옳은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에스겔 18장 5-9절은 조건절(A, 18:5), 의인의 행위 목록(B, 18:6-8), 결과절(A', 18:9)로 구성된다.

A 5절 사람이 의로움(a) - 정의와 공의를 행함(b)

B 6-8절 의로운 사람의 행위

6a절 종교적 규례

6b-8절 사회도덕적 규례

A' 9절 규례와 법도를 행함(b') - 그는 의로움, 그는 살리라(a)

21) M. Greenberg, *Ezekiel 1-20*, 342.

22) 십계명을 원형으로 하는 교훈으로 보는 입장, 토라 예전문 혹은 성전 입구 예전문으로 보는 입장, 덕 목록으로서 가족/지파의 자리에서 기원하여 제의적, 문학적 표현을 입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의 고백으로 보는 입장, 십계명과 시편(예, 시 15; 24:3-6)을 결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덕 목록을 구성한다는 입장 등이 있다. 법 목록을 보는 각 입장의 주요 주창자는 제시 순서에 따라 모빙켈(S. Mowinckel)과 해럴슨(W. Harrelson), 궁켈(H. Gunkel)과 베그리히(J. Begrich)와 코흐와 벤첸(A. Bentzen), 거스텐버거(E. S. Gerstenberger), 콜링(K. Galling), 바인펠트와 매티즈 등이 다. 자세한 연구사를 알기 위해서는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the Moral Discourse*, 92-105 참고. 이와 유사한 목록으로 자주 거론되는 본문은 시편 15편과 24편 3-6절, 이사야 33장 14-16절 등이 있다. M. Greenberg, *Ezekiel 1-20*, 342; M. Weinfeld, "Instructions for Temple Visitors in the Bible and in Ancient Egypt," *Egyptological Studies*, SH 28 (Jerusalem: Magnes, 1982), 224-250.

5절(A)과 9절(A')이 각각 '사람이 의롭다'를 가지고 있으므로 5-9절은 수미상응구조를 형성한다. 의로운 사람의 행위 목록을 나타내는 B(6-8절)는 짧은 종교 규례(6a절)와 보다 긴 사회도덕적 규례(6b-8절)를 포함한다. 5절과 9절은 '사람이 의롭다'라는 진술을 공통적으로 가지면서 각각 '정의와 공의 행함,' '규례와 법도 행함'을 포함한다. 5절의 '정의와 공의 행함'이 9절에서 '규례와 법도 행함'으로 재진술된다고 볼 때,<sup>23)</sup> 5절과 9절은 의로운 사람의 행위 목록(6-8절)을 감싸면서 교차대구(abb'a)를 형성한다.

## 2.3. 에스겔 18:5-9의 본문 풀이

### 2.3.1. '의롭다'(5a, 9b절)와 '정의와 공의'(5b절)

'의롭다'와 '정의와 공의'에 쓰인 두 어휘, '차다크'(צַדִּיק)와 '츠다카'<sup>24)</sup>는 모두 어근 '차다크'(צָדַק)<sup>25)</sup>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명사이다.<sup>26)</sup> 차다크에서

23) M. Greenberg, *Ezekiel 1-20*, 328. 『가톨릭 성경』, 2판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1458;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570-574; M. A. Sweeney, *Reading Ezeki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 알렌(L. C. Allen)도 그란버그와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다.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1-19』,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9), 521-524.

24) 츠다카는 '체테크'(צִדִּיק)의 여성형이다. 두 용어를 이해하는 두 관점이 있다. 존슨(B. Johnson), 프락쉬(O. Procksch), 켈센(A. Jepsen)과 슈미트(H. H. Schmid)와 같은 학자들은 츠다가가 체테크보다 기저의 개념을 구체화한다고 본다. 반면 팔그렌(K. H. Fahlgren), 왓슨(W. G. E. Watson), 스컬리언(J. J. Scullion), 코흐(K. Koch)와 같은 학자들은 체테크와 츠다가 간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고 둘을 함께 다룬다. 본 논문도 후자의 입장에 있다. 복수형이 없는 체테크와는 달리, 츠다카에는 복수형이 있고 그 복수형이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둘은 분명히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본문들(시 72:2, 96:13; 사 1:21, 5:7; 58:2; 겔 3:20; 호 10:12 등)이 체테크와 츠다카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구약성경이 체테크와 츠다카를 본질적인 의미 차이 없이 사용하였다는 반증이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이다. 에스겔 18장은 츠다카로 '공의'를 표현하지만, 에스겔 18:21-24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스겔 3:20은 '공의'를 체테크와 츠다카로 표현한다.

25) 히브리어 어근은 기본형인 칼, 3인칭, 남성, 단수 형태를 음역한다.

파생된 어휘는 품사에 따라 쓰임새는 다르지만, 의미에서는 매우 동질적이므로 차다크에 대한 이해는 차디크와 츠다카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또한 에스겔 18장에 네 번(겔 18:5, 19, 21, 27) 나타나는 ‘미쉬파트 우츠다카’는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로 대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sup>27)</sup> 차다크에 대한 이해는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구약성경은 차다크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문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차다크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한다. 첫째, 차다크를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sup>28)</sup> 모든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그 사람은 공의롭다고 평가된다. 둘째, 차다크를 옳음, 적합한 질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sup>29)</sup> 이 관점은 가난한 자의 구원, 억압과 폭력으로 부터의 자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구성한다고 본다. 셋째, 앞의 두 관점을 통합한다. 차다크는 모든 영역에서 옳은 것을 행함과 관련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 관계와 연결시켰다.<sup>30)</sup> 차다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 관계 내에서의 옳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통제한다는 것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도 이 관점을 따른다.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 츠다카 즉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차다크>.’ 에스겔 18:6-8은 공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6) 구약에서 어근 차다크는 구약성경에 총 523회 사용되었다(B. Johnson, “צדק,” *TDOT* XII, 243; K. Koch, “צדק,” *TLOT* 3, 1048-1049; N. Declaissé-Walford, “Righteousness in the OT,” *NIB* 4, 818). 그 중 동사는 주로 칼(22회), 피엘(5회), 히필(12회) 형태로 쓰이고, 니팔과 히트파엘로 각 1회씩 사용되었다. 명사로서 체데크/츠다카가 각각 119회와 157회 사용되었다. 형용사 차다크는 206회 사용됨으로써 어근 차다크의 파생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7) 본 논문 각주 13) 참고.

28) E. R. Achtemeier, “Righteousness in the OT,” *IDB* 4, 80-85.

29) J. J. Scullion, “Righteousness(OT),” *ABD* V, 724-736.

30) N. Declaissé-Walford, “Righteousness in the OT,” 818-823.

### 2.3.2. 우상숭배 관련 규례(6a절)

#### (1) ‘산 위에서 먹는 것’(6aα절)

에스겔 18장은 ‘산 위에서 먹는 것’ (אֲל-הַהָרִים+אָכַל)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겔 18:6aα, 11bα, 15aα; 22:9bα).<sup>31)</sup> ‘산 위에서 먹는 것’은 에스겔서 외에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sup>32)</sup> 에스겔 6:1은 이스라엘 산에게 주는 예언이지만, 이스라엘 산은 3절에서 산당으로 옮겨간다. 산당은 우상숭배적 희생제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산 위에서 먹지 않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표지가 되는 행위 목록의 첫 부분에 나타난다.<sup>33)</sup> 침멸리에 따르면, 희생제사에 수반되는 공동체 식사를 가리키는 ‘산 위에서 먹는 것’은 에스겔서의 고유한 양식이다.<sup>34)</sup> 산당에서 자행되는 우상숭배적 제의는 신명기가 강하게 금지하고(신 12:2-3), 호세아 4:13은 그것을 음행과 간음이라 부르며 격렬하게 규탄한다. 이사야 65:7은 그것을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이라 규정한다.

#### (2)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드는 것(6aβ절)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든다’는 표현 역시 에스겔서에만 나타난다. 우상은 ‘길롤림’(גִּלְלוּלִים)을 번역한 것으로서, 길롤림은 조어(造語)이다. 길롤림은 구약성경에 모두 48회 나타나는데, 그 중 39회가 에스겔서에 나타난다. 이는 길롤림이 우상숭배를 강하게 규탄하는 에스겔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멸리는 길롤림이 ‘인분’을 뜻하는 ‘겔’, 복수형 ‘겔를레’(גַּלְלִי, pl. גִּלְלוּלִי) (겔 4:12, 15)의 자음과 신명기 29:17[16]절<sup>35)</sup>의 ‘쉬쿠

31) 에스겔 18장 15aα절은 엘 헤하림 대신에 알(עַל) 헤하림이라고 쓴다.

32)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571.

33) W. Zimmerli, *Ezekiel 1*, 186.

34) Ibid., 380.

35) 신명기 29:17[16]에는 길롤림과 쉬쿠침이 함께 나타난다. 『개역개정』과 MT의 절 표기가 다를 경우 [ ]에 MT의 절을 표기한다.

침(שְׁקִינִי)의 모음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럴 경우 길롤림은 이름 자체에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sup>36)</sup> 보디(D. Bodi)는 길롤림의 자음은 ‘구르다’를 의미하는 ‘갈랄’(גלל)에서, 모음은 쉬쿠침에서 차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7)</sup> 자음의 출처가 다르다 해도, 보디 역시 에스겔이 이 어휘를 통해 우상과 겔를레를 동일시했을 수 있다고 본다. 길롤림은 우상의 모양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에스겔 자신과 하나님의 태도를 표현한다.<sup>38)</sup> 에스겔 18장이 산당에서 일어나는 이교도적 희생제사를 말하고, 길롤림은 이방의 제의 물건을 매우 적대적으로 가리키는 데 사용되므로<sup>39)</sup> 길롤림이 산당에 세워진 신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에게 눈을 드는 것’(לְעֵינַי וְלְעֵינֶיךָ)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창 13:10,14; 18:2 등)이며, 의식적인 유혹(창 39:7)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시 121:1; 123:1)을 표현하기도 한다.<sup>40)</sup> 에스겔 18장에서 이 표현은 길롤림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려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에스겔 18:6a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산당에서 길롤림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는 이교도적 우상숭배 행위를 함축한다.

### (3) 에스겔 18장과 레위기 19장의 종교 규례의 관련성

에스겔 18:6a의 ‘산 위에서 먹는 것’과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는 것’은 모두 레위기 19장의 우상숭배 금지 규례와 관련 있다. 먼저 에스겔 18:6aα의 ‘산 위에서 먹는 것’과 19:26a의 ‘피채(עַל-הָרֶגֶט) 먹는 것’의 관련성이 일찍이 감지되었다. 칠십인경이 레위기 19:26a의 ‘알 하담’을 ‘엘

36) W. Zimmerli, *Ezekiel 1*, 187.

37)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226에서 재인용.

38) Ibid., 226.

39) W. Zimmerli, *Ezekiel 1*, 187.

40) Ibid., 380.

헤하람'의 헬라어 읽기인 '에피 톤 오레온'(ἐπὶ τῶν ὀρέων)으로 읽기 때문이다. 또한 에스겔 18:6aβ과 같이 '이스라엘 집의 우상에 눈을 드는 것'을 말하는 에스겔 33:25a이 '산 위에서 먹는 것' 대신 레위기 19:26a의 '피째 먹는 것'을 함께 언급한다. 에스겔 33:25과 레위기 19:26a<sup>41)</sup> 두 군데만 우상숭배 혹은 이방 제의 금지 맥락에서 '피 섭취 금지'를 '알 하담'으로 표현한다고<sup>42)</sup> 볼 때, 이 두 절의 관련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에스겔 33:25aβ과 어휘와 내용면에서 공명하는 에스겔 18:6a 또한 레위기 19:26a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이 점을 반영하듯이, BHS 비평장치는 에스겔 18:6aα의 '엘 헤하람'을 레위기 19:26a과 같이 '알 하담'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sup>44)</sup> 거스텐버거도 레위기 19:26-28이 에스겔 18장과 동일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보고, 레위기 19장과 에스겔 18장이 유사한 본문이라고 보았다.<sup>45)</sup>

또한 '~에게 눈을 드는 것'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레위기 19:4aα과 31aα의 '파나+엘'(פָּנָה+אֵל)로서, 권력, 인간, 신 등을 의지하는 행위를 표현한다. 4aα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기력한 우상을 가리키는 '엘릴람'(אֱלִילָם)을, 31aα절은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내는 '오보트'(אוֹבוֹת)와 '이드오남'(יִדְעֹנָם)을 각각 의지하는 대상으로 제시한다. 엘릴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길롤람과 그리 동떨어지지 않는다.<sup>46)</sup> 한편, 에스겔 18장이 제시

41) 레위기 19:26-28은 피째 먹기와 점술과 이교적 애도 풍습을 금지한다. 점술 역시 이교적 풍습이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째 먹기는 이교적 풍습의 금지 맥락에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밀그롬은 피 금지가 주변의 문화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강한 반대의 표현이라고 본다. J. Milgrom, "The Biblical Diet Laws as an Ethical System," *Interpretation* 17 (1963), 289.

42)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the Moral Discourse*, 163.

43) 에스겔 18:6a(MT) אֱלֹהֵי הָהָרִים לֹא אֵכָל וְעֵינָיו לֹא נָשָׂא אֶל-גִּלּוּלֵי בֵּית יִשְׂרָאֵל  
 에스겔 33:25aβ(MT) עַל-הַדָּם תֹּאכְלוּ אֶל-גִּלּוּלֵיכֶם וְדָם תִּשְׁפְּכוּ  
 레위기 19:26a(MT) לֹא תֹאכְלוּ עַל-הַדָּם  
 레위기 19:26a(LXX) μὴ ἔσθετε ἐπὶ τῶν ὀρέων

44) BHS, 924.

45) E. S. Gerstenberger, *Leviticu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275.

46) 매티즈 역시 레위기 19:4이 구약성경에서 에스겔 18:6aβ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종교규례는 이교도적 우상숭배에 국한되지만, 레위기 19장은 우상숭배 금지뿐 아니라 안식일, 화목제, 속건제, 성소 경외 등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제의를 함께 제시한다.

### 2.3.3. 성윤리(6b절)

#### (1)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

7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간음을 금한다(출 20:14; 신 5:18). 레위기 18:20과 민수기 5:14, 20, 27-29과 에스겔 18:6과 33:26은 간음을 더럽힘<sup>47)</sup>으로 표현한다. 이스라엘은 성윤리를 정결과 부정의 구조로 보는 데 반해 고대 서아시아의 법에는 그러한 경향이 희미하다.<sup>48)</sup> 고대 서아시아에서 간음은 신에 대한 죄이기는 하지만 민법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감형과 용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간음은 명백한 종교적 범죄이다.<sup>49)</sup> 레위기 18장이 문란한 성행위가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이 주민을 토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레 18:25),<sup>50)</sup> 에스겔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고 함으로써(겔 36:17-18) 레위기 18장과 죄로 인한 땅의 오염이라는 관점을 공유한다.

---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the Moral Discourse*, 164.

47) 레위기 18:20만이 간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몸이 모두 더럽혀진다고 표현하고 나머지 다른 절들은 간음이 여자의 몸을 더럽힌다고 묘사한다.

48)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금령에 관한 연구: 가까운 살붙이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레 18:7-16)는 규정에 관한 구성분석(Composition Analysis)과 간본문적 해석(Intertextuality)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4), 400-401.

49) J. Milgrom, *Leviticus 17-22*, AB 4 (New York: Doubleday, 2000), 1550.

50) 김선종에 의하면, 거룩법전에서 땅은 확장된 하나님의 성소이므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거주자들의 문란한 성행위로 인해 땅이 더러워지면 거주민들을 토해내면서 땅은 정결함을 회복하고자 한다. 김선종, “성결법전의 땅,” *Canon&Culture* 5:1 (2011), 134-135.

## (2)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의 율법이 강하게 금지한다. 이 행위는 레위기 18:19; 20:18과 에스겔 18:6만 언급한다. 레위기 18:19과 에스겔 18:6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의 동침 금지를 명할 뿐이지만, 레위기 20:18은 그 이유와 처벌을 명확히 한다. 그 행위는 여인의 피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두 사람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sup>51)</sup>

## (3) 에스겔 18장과 레위기 19장의 성윤리의 관련성

에스겔 18장은 레위기 18, 20장과 간음과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의 동침을 보는 관점을 공유한다. 또한 레위기 18:19, 20:18, 에스겔 18:6만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의 동침을 언급한다는 것은 세 본문간의 직접적인 인용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에스겔 18장은 성윤리에 있어서는 레위기 19장보다 18, 20장과 더 큰 관련성을 가진다. 레위기 19장의 성윤리는 부모로 하여금 딸을 음행으로 내몰지 말라는 명령(레 19:29)이 유일하다. 딸을 더럽혀서 음행하게 하는 것은 성물을 더럽히는 것과 같이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sup>52)</sup> 딸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우받아야 한다.<sup>53)</sup> 그러나 음행 금지는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가지므로, 이 점에서 죄가 땅을 더럽힌다고 보는 에스겔서와 관점을 공유한다.

또한 레위기 18장과 20장, 에스겔 18장은 성윤리와 우상숭배를 함께

51) 에일버그-슈바르츠(H. Eilberg-Schwartz)는 레위기 18장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을 금하는 것을 부정의 전염과 함께 수태에 이르지 못하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H. Eilberg-Schwartz, *The Savage Judaism: An Anthropology of Israelite Religion and Ancient Juda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182-186.

52) B. Levine,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 New York •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33.

53) J. Sklar, *Levitic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4), 251.

제시한다. 그러나 레위기 18장과 20장과 에스겔 18장이 언급하는 우상숭배의 내용은 다르다. 레위기 18장은 몰렉 숭배, 20장은 몰렉 숭배와 초혼술, 에스겔 18장은 산 위에서 먹는 것과 우상에게 눈을 드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스겔 18장이 언급하는 우상숭배의 내용은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아니라 레위기 19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의 우상숭배와 음행 관련 규례가 레위기 18, 19, 20장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스겔 18장의 우상숭배와 성윤리 규례는 레위기의 구조상 큰 단락을 구성하는 18-20장<sup>54)</sup>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 2.3.4. 사회도덕적 규례(7-8절)

#### (1) 학대하지 않음(7a 절)

7a 절 ‘학대’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아나’(אִנָּה)의 히브리어는 오경과 예언서에서 주로 금지되거나 비판되는 행위를 묘사한다. 학대의 대상으로는 거류민(출 22:21[20]; 레 19:33), 재산을 거래하는 이웃(레 25:14, 17), 도망친 노예(신 23:15-16[16-17]),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렘 22:3),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겔 18:12; 22:29), 고아와 과부(겔 22:7), 백성(겔 45:8; 46:18)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약자이거나 상대적인 약자이다.

에스겔 18:7-8이 제시하는 8개의 사회적 행위 중에서 6개가 경제영역과 관련되고, 그 행위들이 아나를 뒤따르므로, 그들을 학대의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sup>55)</sup> 12-13절과 16-17절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이것은

54) 우상숭배와 성관계에 대한 유사한 금기들을 다루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은 19장의 앞뒤에서 ABA'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윤리규정을 담고 있는 19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J. Milgrom,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CC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175; M. Douglas,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erpretation* 53:4 (1999), 343. 노세영은 레위기 18-20장이 레위기의 문학적, 신학적 정점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노세영, "레위기 18-20장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7 (2020), 70-105.

에스겔 18장 아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제적 확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아나는 더 약한 자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을 주로 일컫는다.<sup>56)</sup>

## (2) 빚 저당물을 돌려줌(7aβ절)

7aβ은 빚 저당물을 돌려주는 것을 의로운 사람의 둘째 덕목으로 제시한다. 빚 저당물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기 22:26-27[25-26], 신명기 24:6, 10-13, 17에서 볼 수 있다. 출애굽기 22:26-27[25-26]과 신명기 24:12-13은 채무자가 가난하다면 채권자는 저당물로 취한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한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과부의 옷을 저당잡지 말라는 규정(신 24:17)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가난한 자에게서 받은 빚 저당물인 옷을 돌려주어 채무자가 그것을 입고 자면서 채권자를 축복하면, 이것이 채권자의 공의이다(신 24:13). 한편 신명기 24:6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맷돌을 저당잡지 말라고 규정한다. 맷돌은 가족의 매일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것을 전당잡는 것은 가족의 매일의 생계 해결을 억압할 것이다.<sup>57)</sup> 빚 저당물을 잡는 것에 관하여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어떤 경우에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에스겔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18:7aβ을 해석하여 빚 저당물을 돌려주는 것을 의로운 사람의 덕목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3) 착취하지 않음(7aγ절)

7aγ절의 ‘착취’하는 행위 ‘가잘’(גַּזַּל)은 속건제(레 6:2[5:21])와 거룩함 규정(레 19:13)에 나온다. 가잘은 힘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sup>58)</sup> 가잘은 또한 ‘아사크’(אָסַק)와 함께 쓰여 종종

55) W. Zimmerli, *Ezekiel 1*, 380.

56)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572.

57) 패트릭 D. 밀러, 『신명기』, 김희권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71.

경제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착취를 표현한다(레 6:2[5:21]; 19:13; 신 28:29; 렘 21:12; 22:3; 겔 18:18; 22:29; 미 2:2; 시 62:11).<sup>59)</sup> 에스겔 18장에 레위기 6[5]장과 19장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착취 표현 가잘/아샤크가 나온다는 것은 두 책의 관계에 대한 지표가 된다.<sup>60)</sup> 에스겔 18장은 제의 규정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므로 7ay절의 가잘 행위는 레위기 19장을 참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4)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줌(7b절)

이 명령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사장 법전에는 동일한 명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레위기 19:9-10과 23:22은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수확량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령한다. 동일한 명령은 신명기 10:18과 이사야 58:7에서 볼 수 있다. 신명기 10:18은 거류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한다. 이사야 58:7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58:7과 에스겔 18:7b이 사용한 어휘는 공통적이다. 이 두 본문과 거류민에게 떡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덕목을 제시하는 신명기 10:18의 관련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중요 주제로 나누는 율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율 22, 24, 31장)<sup>61)</sup>는 그들에 대한 태도가 의로움과 죄악의 기준이 될 수 있음(율 22:2-11)을 보여준다.

58) HALOT I, 186; TDOT II, “גַּל,” 456-458.

59) TDOT XI, “אָשַׁק,” 414.

60)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the Moral Discourse*, 169.

61)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573.

## (5) 돈놀이를 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취하지 않음(8a 절)

8a 절은 대부에서 특정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곤경에 처한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말한다.<sup>62)</sup> ‘돈놀이’와 ‘과도한 이자’는 ‘네세크’(נִשֶּׁק)와 ‘타르비트’(תַּרְבִּית)에 대한 번역이다. 네세크는 어근 ‘나사크’(נָסַק)에서 파생한 명사로, 문자적으로 ‘베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자가 ‘원금에서 베어진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한다.<sup>63)</sup> 타르비트는 어근 ‘라바’(רָבָה)에서 파생한 명사로,<sup>64)</sup> 대출을 상환할 때 요구된 것으로 총 채무액에 덧붙여진 부가적인 요금을 의미한다.<sup>65)</sup> HALOT과 BDB는 모두 타르비트에 고리대금의 의미를 제시한다.<sup>66)</sup> 타르비트를 취하는 것을 ‘탈취’의 의미를 가지는 ‘라카흐’(לָקַח)<sup>67)</sup> 동사로 표현한 것도 과도함을 암시한다.

대부시 이자 수취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2:25[26]과 신명기 23:19-20[18-19]과 레위기 25:35-38에서 볼 수 있다. 예스겔 18:8a은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 것뿐만 아니라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지 말 것을 함께 규정한다는 점에서 레위기 25:35-38의 규정에 가깝다. 또한 레위기 25:35-38에도 네세크와 타르비트가 모두 나타난다.

빚 저장물과 이자 수취에 대한 규정은 주제 면에서 연결된다.<sup>68)</sup> 출애굽기 22:25-27과 레위기 25:35-38의 대부 규정에 따르면, 대부는 원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인 장치였다. 그러므로 꾸어주는 자에게 가난한 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가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얻게 된 부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계한

62) W. Eichrodt, *Ezekiel*,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239.

63) A. S. Kapelrud, “נִשֶּׁק,” *TDOT* X, 62.

64)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573.

65) C. van Leeuwen, *Le développement du sens social en Israël avant l'ère chrétienne* (Assen: Van Gorcum, 1955), 53 이하.

66) HALOT II, 1787; BDB, 916.

67) HALOT I, 534-535.

68) J. G. McConville, *Deuteronomy*, AOTC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2), 360.

다.<sup>69)</sup> 의로운 사람이 돈놀이와 과도한 이자 수취를 하지 않는 것은 약자를 ‘아다’하지 않는 다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6) 불의에서 손을 떼고 진실한 판결을 함(8aβ-8b절)

이 절은 ‘불의(עָוֹן)’에서 손을 떼(8aβ절)와 ‘진실한 판결(מִשְׁפָּט אֱמֶת)’을 함(8b절)이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8aβ절의 ‘불의를 행하지 않음’이 8b절의 ‘진실한 판결을 함’(מִשְׁפָּט אֱמֶת+עָשָׂ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에스겔 18:8aβ-8b의 ‘아벨+미쉬파트’와 동사 ‘아사’ 조합이 레위기 19:15, 35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레위기 19:15, 35은 이 어휘들의 조합으로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구성한다. 침멀리와 블록은 에스겔 18:8aβ-8b이 레위기 19:15, 35을 인용한다고 보고,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실한 재판을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70)</sup> 이것은 에스겔 18:5-9과 레위기 19장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예이다. 아벨과 미쉬파트가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에스겔 18:8aβ-8b과 레위기 19:15, 35 뿐이다.

에스겔 18:8aβ-8b은 재판에서의 아벨과 의미상 상호 대척점을 이루는 것으로서 ‘진실한 재판’을 말하고, 레위기 19장은 ‘공의로 재판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에메트와 체데크/츠다카가 병행어로 나타난다(시 85:11[12]; 사 16:5)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진실한 재판’과 ‘공의로운 재판’이 큰 차이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레위기 19:15은 가난하든 세력이 있든 누구의 편에 서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명한다. 이것은 재판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1)</sup>

69) 패트릭 D. Miller, 『신명기』, 271.

70) W. Zimmerli, *Ezekiel 1*, 380;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574.

71)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574.

## (7) 에스겔 18장과 레위기 19장의 사회도덕적 규례의 관련성

‘아나’(겔 18:7, 12, 16)와 ‘가잘’(겔 18:7, 12, 16, 18)과 ‘아샤크’(겔 18:18)로 표현된 학대와 착취 관련 규례는 ‘가잘’과 ‘아샤크’로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를 금하는 레위기 19:13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33은 아나로 거류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한다. 이로써 레위기 19장은 오경에서는 유일하게, 에스겔 18장과 같이 이 세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 전당물 돌려주는 것과 돈놀이와 폭리 관련 규례는 레위기 19장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겔 18:7b)은 수확규정(레 19:9-10)에 언급된다. 또한 에스겔 18장이 약한 자에 대한 보호를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레위기 19장은 일일 노동자의 임금(19:13), 장애인과 노인과 거류민 보호(19:14, 32, 33), 이스라엘 간의 관계(19:11-18)에 대하여 훨씬 광범위한 규례를 제시한다.

한편, 에스겔 18장외에 ‘불의’와 재판을 함께 언급하는 표현(겔 18:8)은 레위기 19:15, 35이 유일하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체테크’가 불의의 대립어로 나타나는 반면, 에스겔 18:8에서는 ‘에메트’가 불의의 대립어로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에스겔 18장이 주장하는(정의와) 공의의 일부분(겔 18:5, 9)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불의와 공의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에스겔 18장 전체로 확장하면 공의가 아벨의 대립어로 나타나는 경향은 분명해진다(겔 18:24, 26).

에스겔 18장에서 공의와 불의는 종교적 규례, 내밀한 사생활, 사회도덕적 규례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모두 적용된다. 반면, 레위기 19장에서 공의는 거룩함(레 19:2, 37)<sup>72)</sup>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도와 규례의 일부분으로서 재판(레 19:15, 35)과 도량형(레 19:35)에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레위기 19장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제시하는 규례가 삶의

72)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9:2)는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이 제시하는 법도와 규례(레 19:3-36)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레위기 19장에서 공의는 거룩함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례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념적 중요성이 레위기 19장의 거룩함 수준으로 격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에스겔 18장과 레위기 19장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스겔 18:7-8이 제사하는 사회도덕적 규례는 여러 책의 본문과 상호관련된다. 그러나 에스겔 18장은 다른 본문들보다 레위기 19장과 더 일관적인 직간접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2.3.5. 규례와 법도를 행함(9a절)<sup>73</sup>; 그는 의인이니 살 것임(9ba절)

에스겔 18:5-9의 구조 분석에서 보았듯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말하는 5b절과 ‘후코트’(חֵקוֹת)와 ‘미쉬파팀’(מִשְׁפָּטִים)을 지키’를 말하는 9a절은 상응한다. 5a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9ba절은 후코트와 미쉬파팀을 지키는 사람을 각각 의롭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후코트와 미쉬파팀을 지키는 것과 같다.

6-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허용된 관계 내에서 정결한 성생활을 하며, 사회적인 약자에게 경제적인 학대를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며,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들(삼하 8:15; 사 5장; 9:1-7; 10장; 11:1-16; 32:1-20; 렘 22:3,13-19; 23:5-8; 33:14-18 등)이 정의와 공의를 사법과 경제 등 사회윤리에 주로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에스겔 18장은 순수 종교 영역과 성관계라는 지극히 사적인 생활 영역을 모두 아우르면서 인간 삶의 모든 부분으로 (정의와) 공의 개념을 확장한다.

한편, 에스겔 18:9a-9ba, “나의 규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레위기 18:5; 19:37; 25:18;

73) 후코트와 미쉬파팀 쌍은 레위기 17-26장과 에스겔서가 공유하는 특징이다. G. H. Matties,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the Moral Discourse*, 178.

26:3과 유사하다. 규례와 법도 준수의 결과로 생명이 약속된다는 점에서 에스겔 18:9a-9b<sup>a</sup>은 레위기 18:5과 특히 유사하다. 레위기 18:5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법도 공식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sup>74)</sup>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규례(레 19장)를 성윤리(레 18, 20장)로 감싸는 레위기의 구조상 레위기 18장의 생명과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거룩함 명령(레 19:2)과 법도와 규례 준수 명령(레 19:37)이 거룩함 규례(레 19:3-36)를 감싸는 구조<sup>75)</sup>는 (정의와) 공의 행함(겔 18:5)과 법도와 규례 준수(겔 19:9)가 (정의와) 공의를 위한 구체적인 규례(겔 19:6-8)를 감싸는 구조에 상응한다. 에스겔 18장과 레위기 19장의 구조는 에스겔 18장의 공의와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의 개념 중요성이 같다는 것을 함축한다.

### 3. 나가는 말

에스겔 18장 5-9절에 대한 주석이 보여준 것처럼, 에스겔 18:5-9은 레위기 19장과 본문의 구조, 어휘, 신학에서 상응한다. 에스겔 18:5-9과 레위기 19장은 공의와 거룩함 행함에 대한 일반론적 도입과 법도와 규례 준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를 공유한다. 우상숭배, 가난한 자 학대와 착취, 재판 관련 규례는 어휘와 주제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 공급은 주제적 연관성을 가진다. 에스겔 18장은 레위기 19장외에도 다양한 책들의 본문을 인용하거나 참고한다. 그러나 에스겔 18:5-9의 주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조와 어휘와 주제 면에서 에스겔 18장은 구약성경의 다른 어떤 본문보다 레위기 19장과 가장 일관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에스겔 18장과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천해야 하는 거룩함

74) P. Sprinkle,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281.

75) 각주 12 참고.

과 공의가 지시하는 영역은 거의 동일하다.<sup>76)</sup>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종교 규례, 성윤리,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 금지, 그들의 필요 공급, 불의를 행하지 않는 진실한 재판 등이 두 본문에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이 거룩함으로 개념화한 규례들이 에스겔 18장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개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레위기 19장에서 공의는 주로 재판과 경제(도량형) 영역에서 사용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지만,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는 계약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덕목으로 나타난다. 레위기 19장의 거룩함과 에스겔 18장의 공의는 같은 수준의 개념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견에 근거하여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이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로 변주된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규례와의 관련성은 여호수아 이후로는 구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성경 내에서 어떤 개념은 그 중요성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어떤 개념은 주도적인 자리를 다른 개념에 내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주요어>

에스겔 18:5-9, 레위기 19장, 본문상호성, 정의와 공의, 거룩함

### <Key Words>

Ezekiel 18:5-9, Leviticus 19, intertextuality, justice and righteousness, holiness

\* 접수일 2021년 2월 24일, 수정일 2021년 3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7일

76)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졸고, “거룩함의 변주, 사랑,” 『구약논단』 78 (2020), 126-154 참고.

## 참고문헌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 2판,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 LXX Septuaginta
- 김선중,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 *Canon&Culture* 8:1 (2014), 195-222.
-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7.
- 노세영, “레위기 18-20장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7(2020), 70-105.
- 밀러, 패트릭 D., 『신명기』, 김희권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블렌킨쑤프, J., 『에스겔』, 현대성서주석, 박문재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알렌, 레슬리 C., 『에스겔 1-19』,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9.
-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금령에 관한 연구: 가까운 살붙이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레 18:7-16)는 규정에 관한 구성분석(Composition Analysis)과 간본문적 해석(Intertextuality)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4.
- 조정호, “거룩함의 변주, 사랑,” 『구약논단』 78(2020), 126-154.
- Achtemeier, E. R., “Righteousness in the OT,” *IDB* 4, 80-85.
- Allen, L., *Ezekiel 20-48*, WBC 28b, Dallas: Word Books, 1994.
- Block, D. I., *The Book of Ezekiel 1-24*,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Cothey, A., “Ethics and Holiness in the Theology of Leviticus,” *JSOT* 30:2 (2005), 131-151.
- Declaissé-Walford, N., “Righteousness in the OT,” *NIB* 4, 818-823.
- Douglas, M.,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erpretation* 53:4 (1999), 351-360.

- Eichrodt, W. *Ezekiel*,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 Eilberg-Schwartz, H., *The Savage Judaism: An Anthropology of Israelite Religion and Ancient Juda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 Gerstenberger, E. S., *Leviticu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Graffy, A., *A Prophet Confronts His People: The Disputation Speech in the Prophets*, AnBib,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4.
- Greenburg, M., *Ezekiel 1-20*, AB 22a, New York: Doubleday, 1983.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sup>nd</sup> ed., M. E. J. Richardson trans., Brill: Leiden · Boston · Köln, 2001.
- Johnson, B., “צֶדֶק,” *TDOT* XII, 239-264.
- Kapelrud, A. S., “נִשְׁף,” *TDOT* X, 62-65.
-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Augsburg, 1995.
- Koch, K., “צֶדֶק,” *TLOT* 3, 1046-1062.
- Levine, B. A., *Levitic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89.
- Lyons, M. A., *From Law to Prophecy: Ezekiel's Use of the Holiness Code*, New York · London: t&t Clark, 2009.
- Matties, G. H., *Ezekiel 18 and the Rhetoric of Moral Discourse*, SBL DS, Georgia: Scholars Press, 1990.
- McConville, J. G., *Deuteronomy*, AOTC,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2.
- Milgrom, J., “The Biblical Diet Laws as an Ethical System,” *Interpretation* 17 (1963), 288-301.
- \_\_\_\_\_, “Leviticus 26 and Ezekiel,” C. A. Evans and S. Talmon eds., *The Quest for context and meaning: studies in biblical intertextuality in honor of James A. Sanders*,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28, Leiden;

- New York: Brill, 1997.
- \_\_\_\_\_, *Leviticus 17-22*, AB 4 (New York: Doubleday, 2000).
- \_\_\_\_\_,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CC,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Muilenburg, J., "Holiness," Butterick, G. A. ed., IDB 2, 616-625.
- Murray, D. F., "The Rhetoric of Disputation: Re-Examination of a Prophetic Genre," *JSOT* 38 (1987), 95-121.
- Nihan, C.,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Robson, J. E., "Forgotten Dimensions of Holiness,"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3(2011), 121-146.
- Sprinkle, P.,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SOT* 31:3 (2007), 275-293.
- Scullion, J. J., "Righteousness(OT)," *ABD* V, 724-736.
- Sklar, J., *Levitic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4.
- Sweeney, M. A., *Reading Ezeki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orporated, 2013.
- van Leeuwen, C., *Le développement du sens social en Israël avant l'ère chrétienne*, Assen: Van Gorcum, 1955.
- Weinfeld, M., "Instructions for Temple Visitors in the Bible and in Ancient Egypt," *Egyptological Studies*, SH 28, Jerusalem: Magnes, 1982.
- Wong, K. L., *The Idea of Retribution in the Book of Ezekiel*, VTSup 87, Leiden: Brill, 2001.
- Zimmerli, W., *Ezekie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초록>

## 에스겔 18:5-9과 레위기 19장의 본문상호성과 그 신학적 함의

조정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이 에스겔 18장에서는 공의로 변주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에스겔 18:5-9절을 주석하여 레위기 19장과의 본문상호성을 규명하였다. 주석은 본문상호적해석, 수사비평, 어휘연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에스겔 18:5-9은 구약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참고하거나 인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18:5-9에 대한 주석은 본문의 어휘, 주제, 구조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본문들보다 레위기 19장과 가장 일관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에스겔 18:5-9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거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함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행함과 법도와 규례 준수를 동일시한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는 우상숭배 금지, 정결한 성생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며 그들의 필요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 진실한 재판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순수 종교 영역, 내밀한 사생활, 사회도덕적 영역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하는 정의와 공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에스겔 18장의 관점은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이 사회윤리의 측면에 국한하여 이해하던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이다. 특히 레위기 19장에서 공의는 거룩함을 구성하던 하나의 요소였다. 그러나 에스겔 18장이 공의의 개념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에스겔 18장에서 공의는 레위기 19장의 거룩함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격상되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은 에스겔 18장에서 변주된다.

<Abstract>

## Intertextuality between Ezekiel 18:5-9 and Leviticus 19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

Jungho Ch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holiness of Leviticus 19 is transformed into righteousness in Ezekiel 18. To this end, first, I commented on Ezekiel 18:5-9 and found the intertextuality between Ezekiel 18:5-9 and Leviticus 19. The methods of exegesis are intertextuality, rhetoric criticism, and vocabulary research.

Ezekiel 18:5-9 cites or refers to various texts from the Old Testament. Nevertheless, an exegesis of Ezekiel 18:5-9 showed that there is more consistent relevance to Leviticus 19 than to any other text in terms of vocabulary, subject, and structure. Ezekiel 18:5-9 equates the practice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with the observance of the laws and ordinances by claiming that those who practice (justice and) righteousness or keep the laws and ordinances are righteous. The ordinances they must keep are the prohibition of idolatry, having a pure sex life, not abusing or exploiting the poor and the weak, actively supplying their needs, and excluding injustice in judgment. These cover all areas of life, such as the realm of pure religion, private life, and social ethics, and means that Israel's righteousness must extend to every area of their lives.

The view of Ezekiel 18 regarding (justice and) righteousness is a broad extension of the concept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which other Old Testament texts understood only in terms of

socialethics. Moreover, righteousness was an element of holiness in Leviticus 19. Therefore, when Ezekiel 18 expanded the concept of righteousness to apply to all areas of human life, righteousness in Ezekiel 18 was elevated to the same level as the holiness of Leviticus 19. Thus, the holiness of Leviticus 19 is transformed into righteousness in Ezekiel 18.